



전북대 회계학과 전경민 교수, 발전기금 기부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전경민 교수가 대학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24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경민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 교수는 "전북대가 대학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한 77억 원 기금 모금을 달성하길 바란다"며 "기금을 통해 회계학과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위해 도전하며 지역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경민 교수의 발전기금은 회계학과로 지정돼 회계학과 발전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준비생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이인호 그룬 대표, 전주교대에 발전기금 기탁

(주)그룬 이인호 대표가 지난 23일 전주교육대학교에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주교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준 총장은 "전주교대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아낌없이 지원해 준 덕분"이라며 "이 기금은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우수한 초·중·고교를 양성하는데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 황토현농협, 전 조합원 영농자재교환권 지급

정읍 황토현농협(조합장 유형기)은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과 함께 조합원들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전 조합원(3,105명)에게 9,972만원의 영농자재 교환권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고물가, 고급료, 저성장이라는 암울한 상황속에 농가경쟁비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황토현농협은 조합원에 한해 농약 전 품목에 대해 약 10%를 할인판매 실시하고 있으며, 전 조합원에게 영농자재 교환권을 지급했다. 황토현농협에 따르면 영농자재 교환권은 황토현농협 이용 실적에 기준에 따라 지급, 농협 본점점 자체판매장에서 비료, 농약 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읍시에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3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화수 시장과 전북모금회 노진선 사무처장 구성모 배분팀장, 김유리 대리 등이 참석했다. 전북모금회 사회복지서비스차량 지원사업은 대상지역 이동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승합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시·군 88개 기관에서 접수해 11개 기관이 선정됐다. 정읍에서는 2개 기관(참중은사람들 사랑나눔공동체, 햇살지역이동센터)이 선정됐고, 전북모금회는 차량을 구매하여 10월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행복한 한 끼를 책임진다’

익산 다이로움 이동 밥차, 익산 곳곳 기부·봉사로 운영

다이로움 이동 밥차가 익산 동서남북 곳곳을 누비며 든든한 한 끼와 행복을 전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웃을 위한 기부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로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하는 다이로움 밥차가 24일 배산체육공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행복 나눔 마켓에서 시작한 다이로움 밥차는 올해로 3년 차를 맞아 이동 밥차뿐만 아니라 문화가 있는 밥차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다이로움 밥차는 한 끼 식사와 함께 이웃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진 문화 공연도 선보이고 있다.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날 부승중합복지관과 서동 로터리 봉사단의 도시락 배부와 더불어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여성화관 강사진이 재능 기부로 장구춤, 남도 민요, 한국 무용 및 댄스 공연을 펼쳐 흥겨운 한바탕을 만들었다. 또한, 도시락이키 차킨을 후원해 도시락을 더욱 푸짐하게 구성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매주 밥차가 멈추지 않고 운영되는 것은 이웃을 돕고자 하는 지역 단체와 기업, 시민들



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라며 "소의계층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이로움 밥차는 매주 첫째 주와 셋째 주는 이동 밥차로 운영해 권역별 지역에서 배식을 진행한다. 둘째 주, 넷째 주는 문화와 함께하는 밥차로 배산체육공원 광장 일원에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문화공연을 진행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체고 육상부, 전국 대회서 금메달 6개 획득

전북체육고등학교 육상부 이우민(3년) 선수가 최근 경북 예천스포디움에서 열린 제53회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에서 800M, 1,500M에서 우승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지(여, 3년) 선수는 창던지기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이아영(여, 3년) 선수는 헤머던지기에서, 김건우(남, 3년) 선수는 멀리뛰기에서, 1학년부 최명진 선수는 1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밖에도 강서영(여, 2년) 선수는 멀리뛰기에서 동메달, 문유빈(여, 3년) 선수는 높이뛰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전북체육중·고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지훈비블을 지원받아 지난 2월 제주도에서 전지훈비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초체력과 전문기술을 쌓아 전국체육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전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 대강면 지사협, 안부 물GO 반찬 나누GO' 추진

남원시 대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중표, 김기환)는 4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씩 총 25회에 걸쳐 관내 독거노인 및 중·장년층 1인 가구 12세대를 선정해 '안부 물GO, 반찬 나누GO'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협의체 "사회복지 특화사업"과 시 농촌종합지원센터 "농촌 찾아가는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과 협력해 추진, 독거노인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가까이하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말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4월 칭찬 릴레이 주인공 '운봉자율방범대' 선정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관내 기관단체들의 공익적 활동을 소개하는 '운봉읍 행복 전염 칭찬 릴레이' 4월 주인공으로 운봉자율방범대를 선정했다고 24일 전했다. 운봉읍의 칭찬 릴레이는 3월부터 시작된 읍 분위기 혁신 시책으로, 매일 칭찬 대상 1인을 선정 그 사유를 주민에게 알리고 대상자에게 칭찬패를 전달함으로써 지역민들의 화합과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운봉읍 행복 전염 칭찬 릴레이'의 특성상 지난달 칭찬 주인공이었던 운봉 남내의용소방대장의 추천으로 운봉자율방범대원 일동을 선정, 치안관리와 제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함 이송 지원을 비롯해 춘향제·비래봉 철쭉제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공이 크다는 점이 팀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한편 이은주 운봉읍장은 읍을 위해 늘 노고를 아끼지 않는 자율방범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칭찬 릴레이가 지역 화합 분위기 쇄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가 지역 화합 분위기 쇄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안천면, 성인-청소년 함께하는 안천 풋살FC 창단

진안군 안천면(면장 이정희)은 지난 23일 안천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천 풋살FC 창단식 행사를 가졌다. 청소년 13명과 성인 19명으로 구성된 안천 풋살FC(단장 최성권 감독 이재훈)는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학생들과 함께 운동을 통해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상호 간의 유대관계를 도모하고자 창단했다. 특히 성인과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건전한 스포츠를 즐긴다는 점이 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날 열린 창단식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같이 식사도 하고, 진안 여자축구팀 마이컬스 및 동향 풋살FC와 친선경기도 가졌다. 또한 안천 풋살FC는 앞으로 매주 2회(화, 목) 정기적으로 풋살장에 모여 함께 운동을 하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풋살팀과도 친선경기 등을 펼치며 지역의 청년들과 소통하며 친목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준성 군수는 "학부모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훈훈한 분위기가 좋은 시대가 되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고창 가평초, 'AI 선도학교' 지정 운영

가평초등학교(교장 유인순)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AI 선도학교'로 지정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AI 선도학교는 디지털 통합사이에 대비하여 학생의 AI 등 디지털 소양 함양 및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추진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가평초는 학생 간 협업 및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디지털 교육 공간에서 교육과정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평초는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은상(4학년 임진우), 동상(4학년 박하운)을 수상하는 물론, 지난해 전국창업발명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단체(상우수상 3명)를 수상했으며, 과학창의대회에서도 가평초 '복부질심' 과학동아리가 동상을 수상하며 해당 학생 전원이 고창군 인재장학생에 선발되기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배우 송경철씨, 부안군 고향사랑 200만원 기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파랑새는 있다' 차려달린 배우 송경철 씨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안이 고향인 송경철 씨는 1971년 연극배우로 처음 데뷔하였고 1973년 MBC 6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하여 '수사반장', '육이 이모', '파랑새는 있다' 등에 출연하였으며 1997년 KBS 연기대상 남우조연상을 받으며 연기력을 인정 받았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박근혜 김수미 등과 함께 전북 향토기업 '쌍방울' 제품 사주기 운동에 참여하여 전북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는 않았다. 최근에는 MBN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 tvN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넷플릭스 예능 '줍비버스' 등에 출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부안=김철진 기자



원불교 남원지구, 대각개교절 기념 은혜의 쌀 나누

남원시는 원불교 남원지구가 24일, 원기109년 4월 28일 원불교 열린날(대각개교절)을 기념해 '은혜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 남원교당과 기관들이 뜻을 모아 남원참기 10kg 165포를(환가액 500만원) 시에 기부해 왔다고 밝혔다. 원불교 남원지구는 해마다 대각개교절을 맞아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원시가족센터,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혜중원광어린이집, 원광지역이동센터 등의 기관과 지역사회에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간담회

남원소방서(서장 안순주)는 24일 남원의료원에서 남원의료원 의료진과 함께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남원소방서장, 남원의료원장 및 진료부장 등 35명의 의료진이 참석해 양 기관 간 의료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양 기관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자 처치, 의료시설 안전대책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은 "평소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남원소방서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